

보스턴, 미국, 그리고 글로벌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김태범

2012년 8월 16일. 미국 연수의 장도를 떠나기 위해 예약해 놓은 출국일은 다가오는데, 답답한 저의 마음을 알리 없는 DS2019(연수 기관에서 연수를 승인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로, 연수 비자 J1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임.)는 세월아, 네월아, 도착할 줄을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Harvard Partners계열 병원들의 DS2019 승인은 철저하게 서류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발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출국일을 잡았어야 했는데, 저도 처음 가는 연수인지라 그걸 몰랐던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현지에서 먼저 가 있던 다른 연수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날짜를 맞출 수 있었던 우리 네 가족은, 앞으로 펼쳐질 American Dream을 위한 행복한 기대에 부풀어, 배웅 나온 가족의 눈물을 애써 외면한 채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보스턴의 Longwood medical area에 위치한 하버드의대 Brigham & Women's Hospital의 Asthma Research Center에서 1년 6개월간 연수를 하였고, 이후 3개월간은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한 Dana & Farber Cancer Institute의 Drug Hypersensitivity and Desensitization Center에서 연수를 수행하였습니다.

제가 연수지를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였던 점은, 임상연구를 할 것이냐, 기초실험연구를 할 것이냐였고, 그간 이리 저리 부딪히며 파악해 놓은 저의 체질과 스타일에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된 임상연구분야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연수라 하면 파이펫을 잡고 직접 실험을 하는 기초연구를 택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Investigator Initiated Trial)의 수준과 현실,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임상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임상연구자라면 누구나 꿈꿔 볼 만한 N Engl J Med을 가장 가까이서 구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모든 영역, 모든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들이 즐비해 있는 보스턴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대가라도 만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천혜의 연구 환경을 지닌 곳이라 생각합니다.

제 보스였던 Dr. Elliot Israel은 천식임상 및 유전체연구의 석학으로, 수 십 개의 크고 작은 임상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흡사 '연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행운 중의 하나는, AsthmaNet (구, Asthma Clinical Research Network)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식임상연구 네트워크와 SARP(Severe Asthma Research Program)의 비공개 내부 연구자 회의에 수 차례 참석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 참여하는 방식, 그리고 멋진

논문을 만들어가는 방식들을 보고 배우며 토의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다기관 천식연구네트워크인 COREA(COhort for Reality and Evolution of adult Asthma in Korea)를 소개하고 공동협력연구를 제안했을 때, 그들이 ‘원더풀’을 외치며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잘 가꾸어진 임상연구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온 좋게 유럽의 중증천식 네트워크인 U-BIOPRED((Unbiased Biomarkers for the Prediction of Respiratory Disease Outcomes)와도 공동연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좋은 연구 주제라도 단일 기관의 제한된 환자pool로는 좋은 성과를 내기 힘들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나라의 자원을 합쳐서 분석하는 것이 대세가 된 만큼, 제가 연수 기간 쌓을 수 있던 연구자 인적 네트워크는 앞으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제 우리나라 연구도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향하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약물알레르기 분야에서도, 항암제 탈감작요법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Dr. Mariana Castells와 함께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논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저에게는 앞으로 해나갈 연구에 크나 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간은 짧지만 난생 처음으로 혼자 숙식을 해결하던 ‘고행’의 기간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연구 분야를 제외한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앞으로 더 이상의 큰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든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치고 올라와서 자신감이 붙었다는 뜻이기도 하거니와, 우리나라가 장점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매우 뛰어난 국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가봐야 안다는 것이 이런 뜻일지 모르겠습니다.

휴가를 받아서 가족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여행의 추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로 제 가슴의 금고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귀국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어디 ‘잠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한국 생활에 신속히 적응되었지만, 그 동안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느라 고생하신 과 선생님들을 생각하니 죄송함이 앞서고,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길고도 짧았던 연수 기간 내내 한번도 연수자 보험을 꺼내지 않게 건강히 지내 준 우리 쌍둥이 남매와, 함께 연수생활을 하는 처지에 자신의 연구만으로도 힘들었음에도 늘 맛있는 한식으로 식탁을 꾸며 준 아내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참 희한하게도, 연수 생활을 회상하면 종종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왜일까요……?

